1. 정순철 (에이치엠에스 부사장, 연구소장)
   * 에이치엠에스는 단말에 연결하는 박스형 네비게이션을 주력으로 하고 있음
   * BMW 기본 장착 네비가 부실한 관계로 BMW 단말에 에이치엠에스 박스형 네비를 연결하여 사용함
   * 이전 네비는 임베디드로 OS없이 제공하였으나, 고객이 WinCE를 요구해서 그렇게 맞추었고, 현재는 안드로이드를 요청하여 맞춰서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다고함
   * 해외에서는 Wddemaps(안드로이드용 맵)를 이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함. 이 맵이 무료인 관계로 요구가 많았으나 최근 글로벌 기업으로 인수되었다고 함
   * 중국에서는 구글맵도 안되기 때문에 MirrorLink를 통한 다양한 솔루션 제공을 요청해오고 있다고 함
   * “스파크” 차량에 Apple CARPlay가 장착되어 팔리고 있음
   * 현재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의 CAR Play가 모두 지원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안드로이드는 구글에서 개발자를 통한 빠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애플은 알아서 하고 모두다 개발사의 책임으로 하고 있어서 업체들이 접근을 어려워하고 있다고함
   * 마이크로소프트 사도 “Window in the CAR”를 주창하고 있으나 몇 년째 외부로 들어난 것이 없다고함
   *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음성인식을 통한 제어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나, 인식률에 대한 대안으로 벤츠나 아우디는 조그다이얼을 인터페이스로 제공하고 있다.
   * BMW는 모니터에 터치가 기본 장착되지 않아, 로컬에서 추가 장착을 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골프”의 경우에는 손이 장치 근처로 가면 메뉴나 UI가 저절로 올라오는 형태로 근접센서가 조작하려고 접근한다는 것을 감지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 2015년 9월 출시 예정인 4인승 카니발(현대기아)에서는 31인치 패널이 제공되며, 기존 카니발의 외형에 내부 뒷좌석을 비행기 퍼스트클래스 처럼 구성하였다고 함
   * 차량 사방에 각각 총 4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구성된 Around View는 원가가 1백만원에 공급되고 있으나, 현재 주차 상황에 한하여 에이치엠에스는 1개의 카메라를 활용하여 취합된 정보를 토대로 차량의 Top-View 상황을 패널에 표시하여 정확하고 안전한 주차를 지원하는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 HUD : Navidy HUD가 아직 출시전이나 투자유치용 동영상을 통해 이슈화되고 많은 자금을 투자받고 있어서 곧 출시 예정이라고함
   * 국내 네비 중에서 아이나비 X1 Cube는 ADAS까지 모두 장착된 제품이나 차량과의 많은 결선이 필요하여 그리 잘 팔리고 있지는 못하다.
2. 리코시스
   * 스위치 조작이 차량 운행시 안전에 많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2015년 CES에서는 제스처 인식을 인터페이스로 들고나온 업체가 대부분 이였다.
   * 폭스바겐 (동영상)

: 조작하기 위해 손이 근처로 향하는 경우 손에 대한 그림자처럼 패널에 중첩 표시가 되어 어느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었다.

: 선루프도 제스처로 제어되는데 1cm간격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키를 가지고 열고 닫고 시동거는 것, 타인에게 권리를 넘겨 타인의 스마트폰으로 동작하는 것을 시연하였으나, 해킹에 대한 문제 서버와의 통신이 안되는 지역에서의 동작 불능에 대한 것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함

* + 아우디는 속도계가 있는 클러스터에 네비가 표시되기도 하는 모델을 상용차에 장착하였으며, 뒷좌석 도어에서도 다양한 차의 상태 및 네비등을 볼 수 있는 패널을 부착하였다.
  + 샤프에서는 Free form display를 시연하였다.
  + 리코시스에서는 TiaCore Native Solution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OS에 적용한 그래픽 엔진을 제공한다.

: Open-GL 베이스로 C++용 라이브러리, 모듈을 제공하며, Adaper Layer를 제공하여 차량 네비에 쓰이는 다양한 OS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